



팀방어를 끝지라니...
SUN, 마운드에 뿔났다

KIA 1·2군 투수코치 바뀌... 초보 한승혁·홍성민 1군 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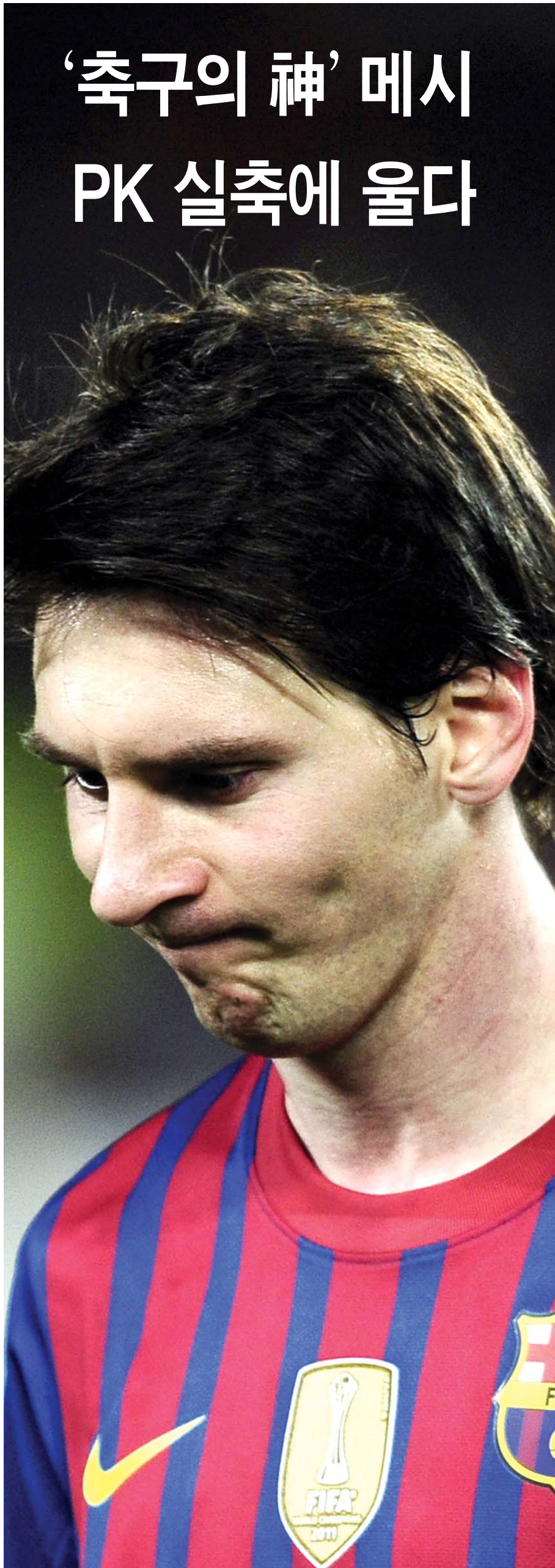
'SUN이 뿔났다.'
KIA 타이거즈가 25일 마운드 엔트리에 변화를 줬다.
1군 다카하시 투수 코치와 2군 조규제 코치의 자리를 맞바꾸고, 24일 경기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임준혁과 박경태를 2군으로 내려보냈다.

으로 끝났다.
한화가 2개의 실책을 기록하는 등 KIA는 몇 차례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그때마다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추격의지가 꺾였다.
등판한 8명의 계투진 중 김희걸·유동훈을 제외한 6명의 투수가 실점했다.

우완 사이드 대졸 신인이다. 시범경기에서 강속구를 던지며 눈길을 끌었던 한승혁의 1군 풀업은 예상했던 과정이지만 일본 스포츠 캠프에 제외됐던 홍성민은 '깜짝 발탁'이다.
"맛타라도 당당하게 자신의 불을 던져라"고 강조해온 선 감독은 마운드 분위기 쇄신을 위해 경험보다는 신인의 패기를 선택했다.

프로야구 전 경기 우천취소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오후 6시 30분 열릴 예정이던 광주구장의 KIA-한화, 잠실구장의 넥센-LG, 문학구장의 두산-SK, 대구구장의 롯데-삼성 경기가 비 때문에 모두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날 취소된 경기는 9월 이후로 편성된다.



'축구의 신' 메시
PK 실축에 울다



첼시 결승 진출

바르셀로나 꺾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첼시가 2년 연속 UEFA 챔피언스리그 제패를 노리던 FC바르셀로나(스페인)를 제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첼시는 25일 새벽(이하 한국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캄프 누에서 열린 2011-2012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바르셀로나와 2-2로 비겼다.
그러나 지난주 홈에서 치러진 4강 1차전에서 디디에 드로그바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둔 첼시는 합계 3-2로 바르셀로나를 따돌리고 결승 티켓을 거머쥐었다.
지난 19일 첼시와의 경기 이후 22일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클라시코에서 차례로 무릎을 꿇은 바르셀로나는 세 경기 연속으로 패배를 당해 위기에 빠졌다.
바르셀로나는 이날 경기에서 1차전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첼시를 몰아붙였다.
선취골도 바르셀로나의 세르히오 부르케츠에게서 나왔다.
전반 35분 부스케츠는 쿠엔카가 오른쪽으로 찰러준 패스를 왼발로 살짝 밀어넣어 골그물 오른쪽 코너를 흔들었다.
2분 후 존 테리가 퇴장당한 데다 5분 뒤에는 안드레 이니에스타의 추가 골까지 터져나와 바르셀로나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처럼 보였다.
산체스가 공을 몰고 가다 중앙의 리오넬 메시에게 불을 건넸고 메시는 이를 좌측에 있던 이니에스타에게 빼앗겼다.
메시의 패스를 받은 이니에스타는 오른발로 마무리해 전반 42분 바르셀로나가 2-0으로 앞서갔다.
그러나 첼시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다.
전반 종료 직전 램파드가 앞으로 찰러준 공을 이어받은 하미레스가 수비수 두 명 사이로 치고 나가 골키퍼 키를 살짝 넘기는 슈팅으로 한 골을 만회했다.
후반 시작과 더불어 바르셀로나가 페널티 킥을 얻으면서 경기 분위기는 첼시에 한층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듯했다.
그러나 챔피언스리그 특집 선수를 달리는 메시가 크로스에 맞는 것으로 페널티킥을 실축해 한 골이 날아갔다.
이날 경기에서 이름값을 하지 못한 메시는 후반 38분에 회심의 슈트를 날렸다.
그러나 이마저도 골키퍼 체호의 손에 맞고 살짝 굴절되면서 골대에 띄워 나왔다.
바르셀로나가 메시의 잇단 불운을 떨쳐내지 못하는 사이에 첼시에선 스페인 국가대표 출신 페르난도 토레스가 구세주로 빛을 발했다.
토레스는 후반 추가 시간에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방심한 틈을 이용해 불을 가로챘던 골키퍼 발데스를 완전히 따돌리고 동점골을 뽑아냈다.
결승 진출에 해기를 막는 골이었다.
첼시는 26일 치러지는 바이에른 뮌헨-레알 마드리드의 4강전 승자와 내달 20일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단판 승부로 결승전을 한다.

① 덕아웃 말말말

"김진우는 '雨' 쓰나? ... 우천으로 자주 취소돼"

▲실랑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 캐치볼을 하고 덕아웃으로 들어오던 윤석민이 취재진들을 향해. 윤석민은 지난 24일 등판에서 5이닝 5실점으로 부진했다.
▲이름에 '우'가 들었잖아요 = KIA 홍보팀, 김진우 등판 경기가 우천으로 자주 취소되자.
▲발레 발레 = 마츠야마 코치가 우아하게 캐치볼을 하는 회회석을 보고.

▲인사받기가 미안하네 = 이순철 수석코치, 전날 실망스러운 경기를 했다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도 미안하다.
▲오늘 걱정이나 해 = 백인호 코치, 정회열 코치가 신속 구장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걸 보고, 신속 구장은 현 구장과 반대 방향으로 지어진다.

▲안녕하십니까불이? 감사합니다람쥐 = 외국인 투수 엔서니가 취재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최근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명하고 있는 말이다.
▲개런티를 더 받아야겠어 = 최근 기아 자동차 CF를 찍은 김상훈, 여기저기에서 광고가 나오고 있다며.

목포 양정두 수영 2관왕

전남체전 봄비에 차질

봄비에 전남체전 레이스가 차질을 빚었다.
제5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가 지난 24일 구례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대회 이틀째인 25일 오전에 일부 경기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날 오후까지 비가 계속되면서 순천 레이크 힐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골프 경기가 시·군 감독자 회의를 통해 취소됐다.
사이클은 구례중앙초 운동장에서 반방도로로 경기장이 변경됐다. 또 26일까지 이틀간 치러질 예정이던 경기는 25일 일정으로 모두 마무리 됐다. 나주가 우승을 차지했고, 강진이 2위, 담양이 3위에 올랐다.

정구도 우천으로 경기가 순연됐고, 테니스 경기도 순천 팔마테니스장으로 장소를 옮겨 일부 경기만 진행됐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장에서 진행된 수영종목에서는 3명의 2관왕이 탄생했다.
양정두(목포)가 남자 자유형50m, 혼계영 200m에서 2관왕에 올랐고, 김민웅(목포)은 남자 접영100m, 혼계영 200m에서 1위를 차지했다. 문해림(광양)은 여자 자유형200m, 혼계영200m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전남체육회 전승현 사무처장과 서정복 전 사무처장은 25일 자리를 갖고 전남체육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남 체육회는 시·군 체육회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간담회의 정례화를 통한 시·군체육회 소통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광주서 육상 꿈나무 질주
5월 1·2일 월드컵경기장

광주에서 육상 꿈나무들의 질주가 펼쳐진다.
제14회 전국꿈나무 선수 선발 육상경기대회가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월드컵경기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주최하고 광주시 육상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초등부(4~6학년)와 중등부(1·2학년)로 나뉘, 71종목의 경기가 진행된다.
초등부 450여명과 중등부 350여명이 참가하며 광주에서는 초등부 5개 학교 20명과 광주체육중 15명이 기량을 겨룬다.
각 종목 1~3위에게는 상장 및 메달이 지급되며 대회 종목별 1~5위까지, 300명이 1차 꿈나무로 선발된다. 육상 꿈나무는 2차 체력측정을 통해 최종선발되며 훈련 지원금과 장려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25,000 부터~ (세금 별도)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